



고요한소리 중도포럼2024

# 중도와 교육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2024년 10월 5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고요한소리 역경원

후원 BTN 불교TV



중도포럼2024

# 중도와 교육

-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

##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 -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

#### ■ 중도포럼2023 ‘중도와 정치’를 열며

(사)고요한소리(회주 황성 스님)에서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을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이 담긴 《초전법륜경》은 그 핵심이 중도입니다. 이천오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법(法)의 바뀌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긴 불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중도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없습니다. 현재 인류가 기후 위기와 AI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는 공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 -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 ■ 행사 순서

시간	내용	진행
11:30~12:30	점심 공양	
〈개회 및 인사〉		
13:00~13:05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최제용 이사
13:05~13:08	경과보고	최제용 이사
13:08~13:11	회장님 인사말	하주락 공동대표
13:11~13:13	좌장 소개	최제용 이사
13:13~13:15	활성 스님 소개	미산 스님
〈주제 발표〉		
13:15~14:05	발제 기초법문	활성 스님
14:05~14:10	휴식	-
14:10~14:50	발표 1. 위기의 시대, 중도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다	이미종 교수
14:50~15:30	발표 2. 학교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의 실천 방안	신희정 교사
15:30~15:45	휴식	-
〈종합토론〉		
15:45~16:45	종합토론 : 전체 참가자 질의응답	미산 스님
16:45~16:55	중도포럼을 마치며	활성 스님
16:55~17:00	마무리 인사	변영섭 공동대표
17:00~17:05	사홍서원 폐회	최제용 이사

---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연자 발표문)**

---

■ 차례

발표 1.

위기의 시대, 중도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다 … 1  
- 이미종 원광대학교 교수

발표 2.

학교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의 실천방안 … 16  
- 신희정 진영고등학교 교사

## 발표 1. 위기의 시대, 중도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다

발표자 : 이미종 교수(원광대학교)

### 〈발표 요약문〉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와 혼란은 ‘공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인간과 세계가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교육 역시 공학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교실 붕괴, 학교 폭력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견해를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과물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인간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움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인류는 인간과 세계를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연기적 존재로 보게 될 것(즉, 중도적 관점)입니다. 이때 인간은 지적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 능력도 함께 키우면서 완성된 인격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도 불교수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도적 관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육활동은 성격상 중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육활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1. 문제제기

원시시대부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이든 위기의 시대 아닌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원시시대에는 원시시대 나름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

니다. 교육도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육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경험과 모방을 통하여 익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를 벗어나 고대-중세-근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 역시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도 내용도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양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 중심 사고가 발달하면서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지식이 개발되고 그 지식을 통하여 이성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등장도 이러한 교육적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교회에 부설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교사 역시 성직자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세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읽기, 쓰기, 셈하기의 내용은 신앙심과 무관하게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요컨대 교육은 원래 시대마다 사회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그 문제의 종류나 내용이 다른 만큼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교육의 모습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간주하고, 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위기는 기후 위기일 것입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던 한국도 지구 온난화 현상의 하나로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서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즈음 과일과 채소 가격이 유난히 비싼 것도 기후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그 한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요즈음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을 ‘기후 위기’로 규정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어찌피 변화하게 되어 있으니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는가’하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원리에 따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성립되어 머무는 성겁(成劫)과 주겁(住劫)의 시간을 지나 파괴되어가는 괴겁(壞劫)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공겁(空劫)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후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인간의 어리석음(無明)이 낳은 결과라면,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위기로 저는 기후 위기를 사례로 언급했지만, 이것 이외에 이 한반도에는 곳곳에 다양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 위기,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인한 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위기 등등. 겉으로 보기에 모두 다른 위기처럼 보이며, 위기가 다른 만큼 그 해결 방법 또한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다양한 위기들은 하나의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중도가 아닌 공학적 관점에서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학적 관점에서 세계와 인간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 2. 현대 위기의 원인: 공학적 사고방식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세를 지나 근대로 오면서 신 중심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 사고방식으로 급선회합니다. 이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사는 주변의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신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에 인류는 자연과학, 수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은 그 학문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가설과 실험을 통하여 확립한 과학적 지식은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과학적 지식 덕분에 인간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튼튼한 집을 짓고 그 안에 다양한 가전 제품을 구비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 지식 그 자체가 가져준 혜택이라기보다는 과학 지식이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생긴 공학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학문이 공학과 결합하면서 의학분야나 농업분야 등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까지 사는 것도 어렵던 인간이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을 갈아 끼워 기계의 기능을 연장하는 것처럼, 인체 특정 부위도 기능이 우수한 새로운 인공기관으로 갈아 끼운다면 인간은 불멸에 가까운 수명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의학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어디에서나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결합이 가져준 혜택

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쟁과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칼이나 활, 좀더 나중에는 총으로 상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요즈음은 사람이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기계가 전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합니다. 첨단 무기 역시 공학적 기술이 가져다 준 성과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만든 교통 통신의 발달 역시 공학적 기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이처럼 의학과 농학, 건축공학, 전자공학 등은 인간의 삶을 바꾼 대표적인 공학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분야들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준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기술을 구안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공학적 사고방식’이라는 특별한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과 그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여 공학적 사고방식은 목표설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이론-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한 분야인 ‘건강한 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던 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의 목표는 건강한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그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여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체로 1분에 60회~100회 정도 수축해야 혈액 순환이 원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이 기능 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학적 지식과 이론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수술을 한다거나 약물치료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심장병을 앓던 아이는 건강한 심장을 가진 아이로 변화됩니다. 공학은 어떤 분야이든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이 사고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인간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이론을 개발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한 심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일상의 삶에서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된 목표는 아주 다양합니다. 산을 개간하여 넓은 농토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 이 섬에서 저 섬까지 가기 위하여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 바다 위에 제방을 쌓아 바다를 농토로 만들겠다는 목표, 대도시 밀집 현상을 해소하기 위

하여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 등등. 이 목표는 대부분 인간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이나 이론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대체로 인간의 이성을 활용합니다. 근대 이후 과학의 시대에는 이 이성 개발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대 이후 우리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가 도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수단(또는 도구)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풍요롭고 편리하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공학적 사고방식에서의 인간의 인식 작용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공학적 사고방식에서의 목표는 대부분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서 나옵니다. 욕구나 욕망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 또한 망칩니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이 욕망을 ‘탐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번뇌를 일으켜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탐욕(貪慾)과 진에(瞋恚)와 치암(痴闇)-중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고의 대표적인 원인인 상카아라의 구체적인 양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상카아라와 담마』, 61). 상카아라는 일반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형성해가기 위해서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중국에서 그것을 행(行)으로 번역한 것은 ‘움직임’이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상카아라는 인간의 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12연기 중의 두 번째 고리에 해당됩니다. 상카아라는 무명으로 인하여 생기며, 무명으로 인하여 생긴 그 상카아라가 인간을 고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공학적 사고방식이 인간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가 목표를 세우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간구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그칠 줄 모릅니다. ‘말을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인간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또다시 간구합니다. 상카아라가 또다른 상카아라를 낳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때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색수상행식) 중에서 수(受/웨다냐)와 상(想/산냐)이 상카아라를 일으키는 일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십니다(77-78).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웨다냐는 ‘감각적 느낌’과 관련됩니다. 안이비설신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대상과 만나면 그 만남을 인연으로 괴롭다,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등의 다양

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 웨다냐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자료를 구성하여 다양한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사유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상, 산냐입니다. 산냐는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으로서 이성과 관련됩니다.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은 개념적 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 사고방식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간구하는 데에 산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간구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 목표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간구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효율적인 수단이라면 그 수단은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목표 달성에 효율적인 이론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그것으로 산냐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산냐는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도구적 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웨다냐와 산냐에 의하여 촉발된 상카아라에는 반드시 식(識/원냐나)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은 오온의 수상행식의 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은 보통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유와 무, 책상과 의자 등,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이 분별 작용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연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타인까지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공학적 사고방식에 작용하는 수상행식은 인간의 삶을 고로 몰아넣는 원인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공학적 사고방식 덕분에 일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기후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적 갈등은 다시 칼날이 되어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깊은 고(苦)의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 4. 교육의 현주소: 공학적 관점

이 문제점은 교육,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원래 인류가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인간활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보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은 공학적 사고방식 덕분이며, 이제 공학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분야 역시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근대 이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든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든 교육의 중요성은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국가에서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제 법칙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김없이 공학적 사고가 적용됩니다. 목표설정-목표달성을 위한 이론-프로그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에서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분야는 사법·행정공무원, 군인, 각종 산업 분야의 인력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잘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됩니다.

국가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식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친 후 인재가 양성되었는지 여부를 시험을 통하여 지식의 습득 정도로 측정합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학교교육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좀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경쟁을 시킵니다. 이제 시험은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학교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내'가 국가 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은연 중에 주변 사람들을 밟고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교육은 성숙한 인격체 기르는 일과는 거리가 먼 전쟁터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교육계에서는 교실 붕괴, 학교 폭력, 입시 부조리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이 훌륭한 인격체를 기르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교교육이 훌륭한 인격체를 기르지 못하는 까닭을 지식교육만 너무 많이 하고 인격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서 찾습니다. 불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산냐를 너무 가르치느냐고 반야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은 상카아라에 의하여 목표가 정해지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도구적 이성은 주로 산냐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냐와 상카아라의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반야의 지혜를 갖춘 훌륭한 인격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지식교육을 하지 말고 반야의 지혜를 기르는 인격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시대별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에서 지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지식은 철학, 종교,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 정착되어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적 유산은 문자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교육은 '교과' 또는 '교과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록물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교과 지식은 상카아라를 증장시킬 뿐, 반야의 지혜를 얻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교과 지식도 반야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담마가 최상승의 진리를 얻는 부처님 가르침의 방편이듯이, 교과 지식이야말로 반야의 지혜를 얻는 방편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반야의 지혜를 얻는 방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이 산냐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 5. 교육의 원래 모습: 지식의 성격

'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일차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책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의 발견 이후 지식은 주로 문자로 기록되어 보관되고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본래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경험을 이해하는 복잡한 방식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안목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히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관심과 신념에 따라 주변 세계에 대하여 상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승인하는 등의 다양한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거기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의미는 개인의 관심과 욕구, 신념과 경험에 따라서 다르며,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런 만큼 개인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의미는 상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상대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의미는 개인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갈등과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큼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은 개인이나 국가가 부여한 의미 체계가 다른 데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상대적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자신의 욕구와 신념에 따라 부여한 상대적 의미를 새로운 관점

에서 평가하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개인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적 의미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의 비판적 검토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은 의미 체계로 바뀝니다. 이것이 곧 지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 지식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지식이 주변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지식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동설이 나오기 이전 인류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한 여러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 방식으로는 행성의 움직임들이 잘 설명되지 않자 사고를 완전히 전환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자 행성들의 움직임이 잘 설명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동설은 천동설이라는 인간의 견해를 반성적으로 성찰한 결과 얻어진 새로운 의미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동설도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다면 새로운 지식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정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개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식을 산냐가 아닌 반야의 지혜, ‘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의미 체계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 토대를 배경으로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따라 주변 세계에 부여한 의미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통념에 의하여 보는 것인 만큼 산냐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개인의 욕구와 신념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주관적 의미 체계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개개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개체적 인식을 ‘원냐아나’(識)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것을 ‘산냐’(想)으로 설명하십니다(『산냐에서 뻘냐로』, 27). 저의 용어로 바뀌어 설명한다면 원냐아나는 개인의 욕구와 신념이 작용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산냐는 사회 문화적 통념에 의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지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원냐아나든 산냐든 두 가지는 모두 대상을 ‘이름’ 또는 ‘관념이나 통념’으로 아는 것인 만큼,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아는 뻘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관심의 방향을 나 자신이 아닌 대상 세계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좀더 나은 견해로 향상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회 문화적 통념 위에 개인의 욕구와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주관적 의미 체계를 ‘반성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

서 이 반성적 사고는 ‘개인’의 반성적 사고를 넘어 ‘인류’의 반성적 사고로 전환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식의 출발점은 산냐와 원냐아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류의 반성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한, 지식은 산냐와 원냐아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지식이 산냐와 원냐아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여 언어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의 개념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여 ‘산냐로서의 개념’이 개인의 욕구나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해당된다면, ‘지식에서의 개념’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 허스트는 인류의 반성적 사고의 결과, 지식이 주관적 의미체계 이상으로 객관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학문으로서의 지식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과 ‘논리구조’와 ‘진리 검증 방법’이 그것입니다. 학문들은 각각 독특한 핵심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자연과학은 중력이나 가속도 등의 핵심 개념을, 수학은 수, 미분, 적분 등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특한 논리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논리구조에 의하여 각 학문의 핵심 개념들은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주변 세계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독특한 진리 검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감각기관을 활용한 관찰과 실험으로 진리를 검증한다면, 인문학은 추론적 사유를 통한 논리적 정합성으로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오랜 반성적 사고의 결과, 가능한 한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 지식 체계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체계는 주변 현상이나 인간 경험의 특정한 측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런 만큼 주변 현상이나 인간 경험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교과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학교에서 교과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주변 현상이나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을 아냐(아나)를 기능별로 수준별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십니다(『산냐에서 뺄냐로』, 25). 한편에서는 아냐를 수준별로 산냐-원냐아나-뺄냐로 설명하시고 다시 뺄냐를 기능별로 아빈냐, 빠린냐, 안냐, 짝쿠, 냐아나, 뺄냐, 윗자 아알로까로 구분하여 설명하십니다. 지면의 한계상 각각의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용어들은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깨달음의 경지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얻게 되는 경지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아녹다라삼막삼보디)에 도달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아라한이 되었을 때 얻는 경지는 안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얻는

최상의 지혜는 안냐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안냐를 비롯하여 산냐와 원냐아나를 넘어서는 밝은 지(智)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용어가 뻘냐라고 설명하십니다(『산냐에서 뻘냐로』, 43). 그렇다면 지식 역시 반성적 사고의 결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개인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여 확립된 것인 만큼 산냐와 원냐아나를 넘어서는 뻘냐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원래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안목, 또는 마음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안목에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 작용했던, 상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승인하는 등의 다양한 마음의 태도로 포함됩니다. 결국 지식에는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 측면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안목의 형태로 존재하던 지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문자를 비롯한 상징체계로 기록됩니다. 상징체계로 기록되면서 지식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인류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인류는 주변 세계 하나하나를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된 지식의 도움으로 자신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고난과 위험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사진’이나 ‘영화’라는 상징체계를 통하여 전쟁의 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직접 가지 않아도 몽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동영상이나 역사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상징체계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상징체계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를 비롯한 상징체계는 인류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폭을 무한에 가까운 정도로 넓혀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체계는 상징으로 기록되는 순간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안목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 자유를 누립니다. 어쩌면 인류가 반성적 사고에 의하여 주관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상징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 자유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언설로 다시 설명하자면 상대적 자유를 가진 상징체계가 반성적 사고를 촉발한 덕분에 안이비설신이라는 인식주체와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인식대상이 산냐와 원냐아나가 노는 육처에 머물지 않고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는 육근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문자를 비롯한 상징체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유 덕분에 반성적 사고를 촉발하고, 그 반성적 사고 덕분에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반야의 지혜, 뻘냐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지식은 성격상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반야의 지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문자를 비롯한 상징체계는 상대적 자유 덕분에 주관적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자가 상대적

자유 이상으로 절대적 자유를 누릴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문자가 절대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지식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지식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실체화되며, 우리의 사고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가 아니라 메마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죽은 지식’, ‘메마른 경험’이라는 말은 바로 지식이 그 자체로 실체화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지식은 더 이상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안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산냐로 전락하여 더 많은 상카아라를 낳을 뿐입니다. 결국 지식은 상대적 자유를 누리는가,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가에 따라서 반야의 지혜를 얻는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산냐로 전락하여 인간의 삶을 고에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6. 교육 방법: 지식을 지식답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핵심 관심사로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뻘냐가 수준별로 기능별로 다양한, 산냐와 원냐아나 이상의 밝은 지(知)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용어이듯이, 지식 또한 앞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름’이나 ‘정보’ 수준의 단편적 지식에서부터 수학이나 물리학, 역사학 등과 같이 다양한 학문체계에 이르기까지 지식 역시 수준별로 기능별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그 다양한 지식 중에서 주변 세계나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이 이해 수준에 맞게 선별한 것입니다. 국어, 수학 등의 교과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식은 성격상 학생이 직접 경험을 통한 시행 착오없이도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과교육의 목적은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넓은 안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넓은 안목은 개인적 선입견이나 편견,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불교의 용어로 ‘중도’(中道)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넓은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지식을 지식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풍요를 얻는 수단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공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지식답게 그 성격에 맞게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의 용어로, 지식을 산냐가 아니라 뻘냐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인간이 산냐 놀음이 아니라 뻘냐로 나아가 향상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하며,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正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정

념의 핵심은 우리의 관심을 외부 사물이나 현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정념을 다시 사념처 수행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념처 수행은 불교 수행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정견, 정사유 등의 수행 방법이 바른 수행 방법이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하여 중도를 지향하도록 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에서 제도상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사념처 수행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핵심이 지식교육인 한 지식교육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교육이 중도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념 수행의 핵심 아이디어가 적용되도록 지식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심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하도록 지식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지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과 지식은 나 자신의 마음의 아니라 외부 사물이나 현상에 관심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과학, 역사 등등 대부분의 교과 지식이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것의 관심이 나 자신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말하거니와, 그 지식은 책이나 교과서에 문자의 형태 또는 이름이나 개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은 주변 세계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의 '안목'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성적 사고 또는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식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된 개념은 원래 산냐가 아니라 뻥뻥의 일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죽은 지식', '메마른 경험'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마음에 있던 안목이 장소를 바꾸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은 원래 교과지식 속에 있는 그 안목을 되살려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듯이, 학생들이 각각의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교과의 기본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교과서에 적힌 기본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에 의지하여 해당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과 지식의 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관심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바꾸어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과 지식을 배우되 관심의 방향이 나에게 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과 지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과 지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식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거나 '사계절이 뚜렷하

던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 탓에 요즈음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원래 교과 지식은 그 속에 있는 기본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학생의 안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학생의 안목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그 지식의 의미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지식의 의미를 철저히 깨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과 지식을 스스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는 설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는 명제를 맹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빛과 그늘은 다르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왜 그늘이 있을까? 등등,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견해를 되돌아보고 그 기존의 견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식은 나의 기존의 견해-선입견이나 고정관념-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고 얼굴을 아름답게 다듬듯이, 학생 '스스로'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지식에 내 견해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사는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불교의 재가 신도들이 불교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교과 지식에 포함된 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관련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의 교사는 교과 지식 속에 포함된 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사가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생 스스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현재의 심리상태나 관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탐구하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특히 학생의 현재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질문, 학생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은 질문은 교과서에 적힌 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를 이해한 후 그 안목으로 주변 세계를 파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교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교사는 본인 스스로 교과지식의 안목으로 주변 세계를 파악하는 일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상태도 파악함으로써 그에게 적합한 질문도 제기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어려움은 승가가 안

고 있는 어려움과 동일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승가 역시 스스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에 오르려고 노력해야 하기도 하지만, 불자들의 수행 상태(또는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불자의 불교 수행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7. 결론: 지식교육과 불교수행

교과 지식의 성격이나 가르치는 방법을 이와 같이 파악하고 보면, 산냐와 뻥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산냐를 벗어나야 할 ‘알음알이’로, 뻥냐를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지혜’로 파악합니다. 불교수행은 산냐를 벗어나 뻥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상념을 떠나 진여로 돌아간다’(離念歸於眞如)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산냐를 벗어나 뻥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인간이 상념을 떠나 진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안이비설신의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세계를 파악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때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는 주변 세계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념은 산냐 또는 상념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산냐 또는 상념을 떠나서 주변 세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뻥냐에 도달하는 것은 산냐를 특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냐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주관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을 반성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 보다 큰 눈으로 주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관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산냐)에서 벗어나 새롭게 얻게 된 큰 눈 역시 또 하나의 산냐, 또는 또 하나의 상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여 이 여정은 ‘중을 지향하는 걸음걸이’임에 틀림없습니다. 한평생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주변 세상을 주관적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견이나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열린 마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뻥냐는 산냐를 벗어나 도달해야 하는 경지가 아니라 산냐를 토대로 또는 산냐를 깊이 파고들어 성찰한 결과로 얻게 된 성숙한 인격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성숙한 인격은 말이 끊어진 자리(言語道斷), 즉 뻥냐인 것입니다.

## 발표 2. 학교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의 실천 방안

발표자 : 신희정 교사(진영고등학교)

### 〈발표 요약문〉

본 글에서는 도덕교육과 불교의 공통적인 특징을 탐구하여 붓다의 중도가 학교 도덕교육의 방향을 이끄는 도덕철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을 모은 『대반열반경』에 나타난 중도의 대화법을 고찰하여 학교 도덕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나아가 중도를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마음을 토대로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학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모했다. 물질적 가치와 경쟁이라는 사회의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운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물품의 부가가치와 같이 교육적 부가가치를 즉각적으로 산출하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요청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는 교육풍토가 자리 잡았다. 학교의 변화에 미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1996년 학교평가와 2010년 교원평가의 도입이다. 이후 학교운영은 평가 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좋아서 해온 교사의 자발적 교육활동은 존립 근거를 잃고 점수에 유리한 것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평가 체제의 강화는 교사가 하는 일을 파편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사들 사이에 맺는 관계의 파편화도 가져왔다. 개인의 인격성에서 우러난 만남과 대화가 실종되고 수업하는 기계, 점수 주는 기계, 관리 통제하는 기계가 되어 가고 있다.<sup>1)</sup>

게다가 2020년 발발한 세계적인 팬데믹은 학교 교육 현장을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네 차

1) 엄기호의 저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2012)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룬 책이다. 엄기호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복잡한 감정적,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육의 목적, 학교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례의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학교를 단시간 내에 강제 진화시킨 탓에 그동안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온라인 학습 시대가 열렸다. 교육 현장은 언택트(Untact)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교육의 방식을 급속하게 바꾸면서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 학습 격차가 심화 되었고, 학업 성취도 차이가 벌어졌다.<sup>2)</sup> 비대면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제한하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업 손실을 경험했다. 즉각적인 피드백 부족과 동료 간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해 학습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 소외 현상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sup> 물리적 공간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감소해 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약화 되었다. 무엇보다 비대면 학습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부재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학교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빅데이터 등과 같은 미래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sup>4)</sup> 나아가, 교사는 학생의 마음에 올바른 성품을 함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과 시민교육도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원대한 교육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교육의 어려움은 교사들을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든다. 교사의 인격적 권위는 이미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했고, 교사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권위마저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sup>5)</sup> 평가체제가 강화된 학교 운영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본질은 타자와의 만남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서로의 삶에 개입

2) COVID-19와 학습 손실과 교육 격차에 대한 자료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경애 외 6,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20); 계보경 외 5,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3)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최근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동학대 신고'였다. 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 유형으로 학생 지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피해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해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 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학부모가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한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공황장애가 왔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린 경우 등이 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830>

4) 2023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 신설을 기획하였다. 그 중 하나로 카이스트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기획안을 승인했다. 당시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 기획안도 동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7년 AI 영재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5692.html>

5) 신희정,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불교적 진단과 처방-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조사상』 59(보조사상연구회, 2022), 222-227쪽.

하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강화시켰다.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업무 처리에 할애하고 있지만, 그 시간은 파편화된 업무에 쓰이고 정작 중요한 교육 활동을 의미 있게 기획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학교 내외의 복잡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교육 현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노력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란,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인격적인 관계맺기를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인격적 성장을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교육은 곧 도덕교육과 다름없다.<sup>6)</sup>

도덕교육은 불교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특히 전도선언문을 통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길을 가르쳐라”고 강조했다.<sup>7)</sup>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사들 역시 붓다처럼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교사들도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sup>8)</sup> 붓다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유사하게 도덕교육 역시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교육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지닌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도덕교육의 핵심과 일치하며,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sup>9)</sup>

필자는 혼란과 위기의 학교교육의 문제상황을 해결해 나갈 지혜와 그 대안을 불교의 중도를 중심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2600년 전 붓다라는 선생의 출현은 제자들이 스스로 ‘고귀한’ 삶을 선택하는 길을 걷도록 바꾸어 놓았다.<sup>10)</sup> 초기불교 경전은 그 과정을 대화 형식

6) 이 글에서 ‘도덕교육’은 독립된 교과로서 운영되는 ‘도덕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 현상을 문제 삼는 교육적 노력을 의미하며 장소, 시간,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학교 도덕교육’이라고 제한했다.

7) 전재성 역주, 『쌍옷따니까야』 제1권(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9), 242-243쪽.

8) 전도선언문에는 붓다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고민이 나타난다. 이 경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설법을 망설인다. 이때 범천 사함빠티가 등장하여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한다. 이때 붓다는 못삶의 고통을 다시 보고 자비심을 내어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 전재성 역주, 『울장대품-마하박가』(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90-96쪽.

9) 불교의 중도 사상을 초기 불교와 용수(나가르주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의의를 탐구한 연구는 고배정, 「불교 중도사상의 도덕교육적 의의 : 초기불교와 용수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이 있다. 이 연구에서 중도 사상은 연기의 법칙을 토대로 양극단을 버린 삶의 실천을 강조하며, 도덕교육의 목표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도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개인의 인격 완성과 사회 및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극복하는 통합적인 도덕교육 방법론을 제공한다.

10) 초기불교 경전에서 ‘고귀한’이라는 말은 팔리어로 ‘아리아(ariya)’이다. 이 단어는 ‘고귀한’ 또는 ‘성스러운’으로 의미로 번역된다. 사성제는 팔리어로 아리아삿짜(ariya-sacca), 팔지성도는 팔리어로 아리아앗탕기모까가(ariyaatthangikamagga)이다. 불교에서 주로 고귀한 진리나 깨달은 성자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붓다는 종종 제자들에게 법문의 내용으로 이를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본 글의

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은 교육적 이야기가 담긴 보고(寶庫)이다.<sup>11)</sup> 붓다는 최초의 설법에서 가장 먼저 중도(中道)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붓다의 가르침이 중도를 근간으로 하여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먼저 불교 중도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대반열반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붓다 대화법의 중도적 특징을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에서 중도의 실천(안)을 제안해 볼 것이다.

## 2. 불교 중도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의의

초기불교의 중도(中道, majjhimāpatipadā)는 중간이라는 뜻을 지닌 뿌리어 ‘majjhimā’와 길 혹은 방법을 의미하는 뿌리어 ‘patipadā’가 합해진 용어이다. 문자적 뜻은 간단하지만, 중도에 대한 사전연구는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중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표는 초기경전에서 중도를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초전법륜경』에 등장하는 고통중도(苦樂中道)는 실천적 중도로서 팔정도와 연결된다. 이 밖의 경전에 나오는 자작타작중도(自作他作中道), 단상중도(斷常中道), 일이중도(一異中道), 유무중도(有無中道)는 이론적 중도로서 십이연기설로 설명된다.<sup>12)</sup> 임승택은 『초전법륜경』에서의 중도는 사성제의 순차적인 실천 순서에 따른 깨달음의 완성으로서 팔정도를 포섭하는 완성으로서 중도라고 본다. 이것은 범부 중생이 접근할 수 없는 오로지 깨달은 성자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러나 그는 『대사십경(大四十經)』을 근거로 하여 팔정도의 두 차원에 해당하는 이상의 길과 현실의 길을 제시하면서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공덕을 쌓아가면서 이상적인 삶인 무위의 세계를 일깨우는 현실의 길로서 중도의 의의를 주장한다.<sup>13)</sup> 남수영은 사전 연구 분석을 통해 중도가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러한 이유가 초기불교 경전의 해석이 지혜를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해석은 중도의 개념이 단순히 분리된 요소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향을 낳았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하여 중도가 포괄적인 개념임을 밝혀냈다. 초기불교의 중도는 사성제, 삼법인, 12연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혜와 열반을 성취한 성자의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sup>14)</sup>

사전 연구에서 중도를 분석하는 틀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중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붓다가 설법한 중도의 본질적인 의미에 반하게 되는 접근으로 보여진다. 붓다가 설법한 중도의 본질적 의미는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doing practice)에 있다. 올렌드스키(Olendzki, A.)는 불교의 주요 개념들이 고정된 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해

3장에서 인용되는 『맛지마니까야』 제26경 『고귀한 구함의 경ariyapariyesanāsutta』이 있다.

11) 신희정은 붓다를 도덕 교사로 상징하고, 불교 경전 대신 '대화편'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초기 불교 경전인 『디가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를 붓다와 제자들의 대화로 구성된 '붓다의 대화편'으로 보고, 특히 『디가니까야』의 34개 경 중 대부분이 문답 형식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붓다는 대화를 통해 상대를 깨달음과 자유, 행복으로 이끄는 스승으로 묘사된다. 신희정, 「초기경전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2018), 26-28쪽.

12) 이중표, 『아함의 중도체계』, (서울: 불광출판부, 2002), 70쪽.

13) 임승택, 「공정성 과잉의 문제와 중도(中道) - 초기불교에 근거한 이 시대의 중도 모색」 『불교학연구(51)』, (불교학연구회, 2017), 239~244쪽.

14) 남수영, 「초기 불교의 중도 개념 재검토」, 『남아시아연구(21)1』(인도연구소, 2015), 61~73쪽

야다고 본다. 그는 불교의 무아 개념이 우리가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재귀적 관점의 불완전성을 지적한다고 설명한다. 명상 실천을 통해 우리는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짐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모든 이름 붙여진 대상들이 사실은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불교적 개념들은 변화와 실천의 과정을 강조하며, 이는 자아나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5)</sup> 이에 따르면 중도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이다. 늘 과정 중에 있는 구체적 실천이다. 개념이나 지식 차원에서 중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명료하게 정의 내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붓다가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한 것을 이해할 때 두 극단을 떠남이 중도를 깨닫는 원인이 되지만, ‘두 극단을 떠남’과 ‘중도를 깨달음’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극단을 떠남의 과정이 곧 중도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초전법륜경』에서 붓다는 두 극단(ubho ante)의 허위의 모습을 꿰뚫어 알아 이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이 중도라고 보고, 이를 팔정도과 동일시하며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알려준다. 초기불교에서 중도는 붓다 자신이 그랬듯이 항상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 배우고 체득되는 지혜이다. 붓다가 공유하는 첫 번째 경험은 쾌락과 고행 사례이다. 경전에서 붓다는 쾌고의 양극단에 ‘빠져들지 않고(na sevittabbā)’고 ‘가까이 하지 않고(anupagamma)’라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중도를 가르친다. 또한 ‘자신이 실천을 통해 깨달은(tathāgatena abhisambuddhā)’ 중도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붓다의 설명 방법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전에 들은 바가 없는 법들에서 안목이 생겼고(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m udapādi)’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듯 들려주는 대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때 붓다는 지식이나 이해에 머무는 개념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작용하는(saṃvattati)’ 중도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맛지마니까야 제26경 『고귀한 구함의 경(Ariyapariyesanāsutta)』은 붓다가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중도를 깨닫는 과정과 『초전법륜경』이 설해지는 배경이 함께 소개된다. 이 경은 제자들이 스승인 붓다와 법담(法談)을 나누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즉 아직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ahampi sudam bhikkhave pubbeva sambodhā anabhisambuddho bodhisattova samāno),”라는 말로 시작하여, ‘고귀하지 않은 구함(anariyā pariyesanā)’에서 ‘고귀한 구함(ariyā pariyesan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붓다가 중도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는 대전환이 일어난다.

고귀하지 않은 구함은 명예, 부, 권력 등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집착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귀한 구함은 해탈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붓다는 고귀하지 못한 구함을 하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한다. 이 자기 물음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구함을 멈추고 숙고하며 성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것과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그때 붓다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재확인한다.<sup>16)</sup> 그것은 바로 붓다의 출가 동기였던 고통에서 완전

15) Olendzki, A., *Unlimiting Mind*. (Wisdom Publications, 2010), 131-132쪽.

16) 붓다가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수행승들이여,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며,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는 것

히 벗어나 위없는 최상의 평화, 즉 열반이다. 이처럼 중도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꿰뚫어 보아,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초기 경전에 나타난 중도의 의미를 바탕으로, 현대 학교 도덕교육에서 중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덕교육과 불교가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과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 완성을 지향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간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기르며,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가치를 습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적, 도덕적, 정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학교 교육은 이러한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개인의 인격 완성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도록 하는 도덕교육을 전제하며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 향상을 목표로 하여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존재와 현상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가르침으로 확장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아우르며, 전 영역에서 실시된다. 한국은 보다 체계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제3차 교육과정(1973~1981)부터 초등학교에서는 ‘도덕’, 고등학교에서는 ‘윤리’라는 독립된 교과 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도덕적 가치관 형성이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한국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을 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학교 교육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분야는 바로 ‘인성교육’이다.<sup>17)</sup>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교과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sup>18)</sup> 최근 시민교육이 함께 강화되면서 도덕 교과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

---

을 구했다. /②그때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왜 나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며,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가? /③그러나 나에게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스스로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지만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늙음, 병들, 죽음, 슬픔, 오염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④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생겨남이 없는 위없는 안온인 열반에 도달했다. 나는 스스로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늙음-병들-죽음-슬픔-오염이 없는 위없는 안온인 열반에 도달했다. 나에게 이와 같이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더 이상 윤회는 없다’라고 앎과 봄이 생겨났다.” 필자는 이 과정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준다고 본다. ①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②와 같이 일상의 사고와 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사유방식과 행동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해 보는 과정이 자기향상과 완성의 길로 나가는 입문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이러한 자각과 자기물음을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교육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7) 교육부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동안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200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전국의 국민 10만1214명이 참여했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될 인재상,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여러 설문이 이뤄졌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추구(20.9%)’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15.9%)’,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15.6%)’,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12.7%)’ 등이 뒤를 이었다. 더 강화해야 할 교육 영역으로는 ‘인성 교육’(36.3%)에 이어 ‘인문학적 소양 교육’(20.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0374.html>

18)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2015), 3쪽.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人性)을 함양하기 위한 핵심 교과임과 동시에, 시민의 도덕성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학교 시민교육의 주요 교과 중 하나라는 위상과 역할도 부여받았다.<sup>19)</sup> 도덕과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극복하고 부여받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도덕이론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교육방법과 평가 지침을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이론은 불교를 비롯한 동서양 윤리학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한 교과지식으로 선택되고 구조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하는 물음을 제기하며 우리가 스스로 의미있는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윤리학 또는 도덕철학이다. 우선 도덕철학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덕적인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덕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의무로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관계하는 데 사실과 달리 판단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도덕을 철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의 의미 확정과 개념화 및 이러한 인식 방법 나아가 도덕적 개념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이러한 도덕철학은 도덕교육의 본질을 말해줌으로써 목표설정과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도덕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내용(contents)이 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도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sup>21)</sup>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찰해보면 고등학교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윤리 사상의 이론 중 하나인 내용 요소로 주로 기능하고, 초중학교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는 명상과 참선 등과 같이 마음을 관리하고 삶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sup>22)</sup> 먼저 고등학교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요소로서 불교윤리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는 동양의 유교·도교와 함께 개괄적으로 불교윤리 사상을 설명하며 현대사회의 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불교의 철학을 도덕원리로 응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리와 사상’은 초기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를 구분하여 불교의 주요 개념과 붓다를 비롯한 불교 사상가를 제시하여 불교사상을 심화시켜서 다룬다. 2015 과정에서 신설된 ‘고전과 윤리’에는 『금강경』과 『수심결』이라는 불교 고전의 원문을 학생들이 직접 읽고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인문학적 혜안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sup>23)</sup> 초중학교 ‘도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 불교윤리사상이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도덕적 성찰과 그 방법, 마음의 평화와 갈등과 같은 내용 요소를 서술한 교과서에서 불교를 활용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불교와 도덕 교육을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 두 분야는 모두 관계성을 중시하며 유사한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 교육 과정에서 불교는 교과 목표 설정 및 내용 구성의 근거가 되는 도덕철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본

19)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6], 2022), 5쪽.

20) 제임스 레이첼스, 노혜련 외 2 역, 『도덕철학의 기초』(서울: 나눔의 집, 2006) 49-52쪽.

21) 정창우(2016),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p. 152-172.

2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에 접속하면 도덕과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3) ‘고전과 윤리’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문학과 윤리’로 과목명이 바뀌며 내용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15개의 동서양 고전에서 26개로 늘어났다. 그중 불교 고전은 2015에서 『금강경』과 『수심결』에 2022에는 『숫타니파타』가 추가되었다. 『숫타니파타』는 초기불교, 『금강경』은 대승불교, 『수심결』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장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의 근원이 되는 중도를 도덕철학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중도라는 도덕적 개념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는 성격을 지니며, 도덕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 상황에서 불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방법으로는 아이즈너(Eisner, E. W.)가 제안한 '교육적 상상력'을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적 상상력이란 교사들이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 방법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다. 그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교육적 상상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또한, 이 상상력은 교육적 맥락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sup>24)</sup> 이 상상력은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학교 도덕 교육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전에 근거해 파악한 중도의 교육적 특징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로운 삶, 현재성, 교육 목적에 대한 마음챙김, 실천성, 그리고 포괄성이다. 교사들이 중도의 교육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원리로 삼아 교육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붓다의 중도는 비난과 슬픔에도 빠지지 않고 기쁨과 쾌락에도 탐닉하지 않는 마음의 균형 상태를 찾는 것이고 현상과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태도이다. 이러한 중도의 가르침은 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이익이 없을뿐더러 결국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부추기는 결과를 반복해서 양산하게 된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하는 것은 무익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도덕철학으로서 중도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적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붓다의 중도는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교사들의 마음을 항상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교사들이 마음을 현재에 집중할 때, 쾌락이나 고통을 피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 상황이 정말로 교육 위기와 혼란 상태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교사들이 도덕교육이 가능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덕교육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고무한다.

셋째, 붓다의 중도는 쾌락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올바른 길로, 이는 교사들의 경험과 실천을 지지하며, 그 과정에서 배움과 지혜를 얻도록 돕는다. 교사에게 가르치는 교육 활동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수업이나 학생 상담, 지도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전달했다고 느낄 때, 교사로서의 삶은 보람차고 즐거운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했던 수업의 결과가 기대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교사의 진정성 있는 교육 활동은 종종 시험 점수나 평가 점수에 왜곡되어 도구화되며, 이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교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마주하는

24) Eisner, E. W.,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3rd ed.)(New York: Macmillan, 1994), pp. 19-29.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자체를 배움과 삶의 기회로 삼도록 이끈다.

넷째, 붓다의 중도는 수행을 멈추고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기 물음과 성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삶과 수행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합당한 교육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매 순간에도 마음챙김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붓다의 중도는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초기 불교의 주요 개념과 가르침을 포괄하는 상위의 가르침이다. 교사들은 올바른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 상황이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도 요구된다. 이는 교육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도는 포괄적인 태도를 통해 교육 공간을 관용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는 역할놀이 학습과 같은 구체적이고 프로그램화된 교육 방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사들이 수업이나 학생 지도 활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마음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는 팔정도와 관련이 깊다. 중도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도의 대의가 포기하지 않는 실천을 통해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것처럼,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교육 방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도덕교육과 불교가 공유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중도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중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대반열반경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중도적 특징

『대반열반경(Mahāparinibbāna Sutta)』은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과 열반을 기록한 중요한 경전이다. 사실 경전에 묘사된 붓다는 깨달은 각자로서 중도를 체득하였기에 늘 중도를 실천하는 선생으로 살고, 붓다가 하는 모든 대화는 중도적 특징을 갖는다. 중도를 직접적인 대화 주제로 삼고 있는 『초전법륜경』과 같은 경전도 있지만 이외의 모든 경전에서 붓다는 항상 극단을 배제하고 제자들이 중도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대화하며 가르친다. 무엇보다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함께 승가 공동체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청하여 듣고 있는 제자들은 붓다가 구체적인 행위와 삶으로써 보여주는 중도를 배우고 있다. 이를 교육의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내용으로서 중도와 방법으로서 중도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셈이다. 본 장에서는 중도의 원리가 돋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반열반경』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특징은 중도는 무엇이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가르치지 않는다. 주로 소극적 형식과 부정의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진다.<sup>25)</sup> 이 특징은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붓다 대화법의 공통된 특징이다. 소극적 형식의 대화법은 붓다가 논리적으로 상대의 논거를 파악한 후,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한다. 이는 일종의 소극적인 반박 방

25) 신희정, 「소크라테스와 붓다 대화법을 통한 도덕교육의 시사점 연구」 『초등도덕교육 64』,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9), 115-146쪽.

식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대화법은 결국 상대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26)</sup> 부정의 형식의 대화법은 쾌락에 집착하는 것과 극단적인 고행을 모두 부정하여 두 극단을 피하는 중도(中道)의 길을 가르친 것이다. 부정의 형식은 특정 행동을 명시적으로 피하고, 중간적 균형 잡힌 길을 찾도록 하는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폭류경』에서 붓다는 “멈추지도 않고 아등바등하지도 않음(anāyūhāmi ca appatitthāmi ca)”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도록 가르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그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거나,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태도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고 보았기에,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가르쳤다. 이러한 부정의 형식은 단순히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고요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 소극적 형식과 부정의 형식의 붓다 대화법은 중도의 원리로 작동하며 마음의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포용적 자세를 갖게 한다.

붓다의 중도적 대화 과정은 『대반열반경』에서 왓지족을 정벌하려는 마가다 국왕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아난다에게 왓지족이 자주 모임을 열고 화합하여 행동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답변을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는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상황을 깨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붓다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적 가르침 대신, 극단적인 결정을 피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여 중도의 길을 제시한다.

마가다국 대신이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붓다는 “당신이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Yassadāni tvam kālam maññaskālam maññasi).”라고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상대가 먼저 대화를 끝내려 할 때 붓다가 취하는 태도이다. 이때 사용된 ‘깔라(kāla)’라는 빨리어는 적절한 시기나 올바른 순간을 뜻하며, 중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선택을 요구한다. 깔라는 중도적 가르침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올바른 시기와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라는 의미로 중도적 삶의 핵심 요소인 지혜로운 판단과 균형을 상징한다.

붓다는 마가다국 왕의 질문에 답한 후, 그 가르침을 비구 승가(僧家)가 퇴보하지 않도록 적용하여 설명한다.<sup>27)</sup> 이 내용은 왓지국 뿐 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극단적인 방식을 피하라는 중도의 가르침은 국가와 승가 내부에서 화합과 협력을 유지하는 의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포용하며, 화합과 균형을 이루는 자세는 중도의 중요한 실천 방법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공동체나 승가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붓다의 중도적 대화법은 법(Dhamma)이 특정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중도가 법이 지닌 포용성과 평등성을 드러내며, 차별 없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모든 중생이 중도를 통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6) 신희정, 「초기불교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사례와 특징 - 문답법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36)』,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417-444쪽.

27) 각목 역, 『디가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0) 167쪽의 각주 174)에는 이를 (1) 민주적 절차 중시, (2) 화합, (3) 준법정신, (4) 위계질서, (5) 건전한 성도덕, (6) 조상숭배 및 전통신앙 존중, (7) 종교인 존중으로 현대적 관점으로 요약해서 제시한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붓다가 반복하는 정형구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하니, 그 번뇌는 감각적 욕망, 존재, 그리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sup>28)</sup> 이 정형구는 설법 장소에 따라 7번 반복된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계, 삼매, 통찰지는 중도의 길과 깊이 연결되며,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앞서 서술한 도덕철학으로서의 중도와 연결시켜 보면, 붓다의 가르침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단계적 실천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계(sīla)는 윤리적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삼매(samādhi)는 이를 바탕으로 깊은 집중에 이르게 하고, 통찰지(paññā)는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가르침은 교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집중과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도울 수 있고, 통찰지는 교사로 하여금 교육적 상황을 넓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

무엇보다 붓다는 왜 이러한 정형구를 법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는 부분에서 반복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사로서의 붓다를 상정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반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반복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방법적 원리가 아니라, 인간 형성 그 자체를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이다. 반복은 존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하는 초월적 과정이며, 인간의 발달과 변화에 필수적이다. 교육에서 반복은 기계적인 학습을 넘어서서, 학생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실천과 성찰을 통해 학생의 심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교과 내용을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나아가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9)</sup> 붓다는 계, 삼매, 통찰지라는 중도의 세 가지 필수적 요소를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이들의 의미와 교훈을 더욱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균형 잡힌 삶과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수행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고귀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붓다의 대화법에서 계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붓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소극적 부정과 긍정적 대조를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계행이 나쁜 자가 겪는 위험 5가지와 계를 지키는 자가 얻는 5가지 이익에 대해 가르치는 이는 붓다의 대화법의 중요한 중도적 특징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비판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붓다는 제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지나친 쾌락이나 고행의 길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계행을 실천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중도적 삶을 따를 때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대반열반경에는 붓다의 중도적 대화 과정이 넘쳐난다. 아니 붓다에게는 대화의 모든 찰라가 중도적 실천이 구현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면의 한계와 연구자가 이해한 중도

28) iti sīlaṃ iti samādhi iti paññā. Silaparibhāvito samādhi mahapphalo hoti mahānisamsa. Samādhiparibhāvitā paññā mahapphalā hoti mahānisamsā. Paññāparibhāvitam cittam sammadeva āsavehi vimuccati, seyyathidaṃ - kāmāsavā, bhavāsavā, avijjāsavā.

29) 임병덕, 「반복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제27권 3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5), 1-17쪽.

와 그것이 실제 구현되는 현상을 포착하는 데 발휘되는 연구자의 안목이 지닌 한계로 인하여 대반열반경의 초반 부분에서 나타나는 붓다의 중도적 대화만을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심화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비록 한계가 있는 연구자의 안목이지만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생긴 교육적 안목으로 중도를 도덕철학으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붓다 대화법의 중도적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개념으로서 정리하고자 하였고, 3장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려고 하였다.

붓다의 대화법에서 계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붓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소극적 부정과 긍정적 대조를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붓다는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겪는 위험 5가지와 계행을 실천하는 자가 얻게 되는 5가지 이익을 통해, 극단적인 비판보다 스스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지나친 쾌락이나 고행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붓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계행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하며, 중도적 삶을 따를 때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한다. 이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밖에 『대반열반경』에는 붓다의 중도적 대화가 자주 등장한다. 사실, 붓다에게는 모든 대화의 순간이 중도적 실천을 구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지면의 한계와 연구자의 안목에 따라 『대반열반경』의 초반 부분에 나타나는 중도적 대화를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이해한 중도와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상을 포착하려고 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화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비록 연구자의 안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20여 년간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얻은 교육적 안목을 바탕으로, 중도를 도덕철학으로 해석하고 붓다의 대화법에서 나타나는 중도적 특징을 고찰하려고 했다. 2장에서는 중도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려고 했고, 3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 4. 나가며: 도덕교육에서 중도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본 연구는 현대 학교 교육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데서 출발하여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 적용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학교는 물질적 가치와 평가를 중심으로 변하면서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약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학습 격차와 학업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하는 교사들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도덕교육의 목표는 윤리적 판단과 공감을 키우는 것이며, 불교의 중도는 이를 위한 중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시한다. 나딩스의 보살핌 교육이론과 불교의 자비와 연기설을 결합하여, 도덕교육에서 중도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나아가 『대반열반경』에서 나타난 붓다의 대화법이 중도적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도를 적용한 도덕교육을 위한 실천 원리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중도는 불교에서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극단적인 사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도덕교육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서 극단을 피하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중요한 원리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평가 중심의 체제와 경쟁 위주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인간

적 상호작용과 인격적인 만남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들 사이의 협력,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교의 중도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다음의 몇 가지 교육적 원리를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음의 균형에 주목한 도덕교육이다. 붓다의 중도는 쾌락과 고통 모두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한다. 도덕교육에서도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나 선택에서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느슨한 태도를 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상에 대한 주목과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 도덕교육이다. 중도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일치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미래의 성과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학습과 경험에서 배움을 얻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경험을 통한 실천의 의미를 제고하는 도덕교육이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이 단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득한 것임을 강조했다. 도덕교육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할 놀이나 실제 상황에서의 윤리적 선택을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성찰과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을 통한 교육 목적성이 확립된 도덕교육이다. 중도적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도덕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삶의 목적을 스스로 탐색하고 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도는 불교의 핵심 개념인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등 다양한 교리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학생들이 여러 도덕적 가치와 관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도의 포괄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중도적 도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입장과 관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역할 놀이 학습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 가지 답이 아닌,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위해 토론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을 도입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사고를 유도한다. 마지막

으로 정서적 균형을 위한 마음챙김 활동을 교과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논리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음챙김 활동을 도입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의 실천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으며,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인격적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덕적 성찰과 실천을 통해 더욱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중도적 교수·학습 실천 방향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각목 역, 『디가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 전재성 역, 『맛지마니까야』(서울: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 계보경 외 5,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충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고배정, 「불교 중도사상의 도덕교육적 의의 : 초기불교와 용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2015).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6], 2022).
- 김경애 외 6,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충북: 한국교육개발원, 2020)
- 남수영, 「초기 불교의 중도 개념 재검토」, 『남아시아연구』 21권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5), pp. 61-73.
- 신희정,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불교적 진단과 처방」, 『보조사상』 63집,(보조사상연구원, 2022), pp. 222-227.
- 신희정, 「소크라테스와 붓다 대화법을 통한 도덕교육의 시사점 연구」, 『초등도덕교육』 64집(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9), pp. 115-146.
- 신희정, 「초기불교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사례와 특징 - 문답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 417-444.
- 신희정, 「초기경전에 나타난 ‘붓다 대화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엄기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서울: 따비, 2013).
- 이중표, 『아함의 중도체계』, (서울: 불광출판부, 2002).
- 임병덕, 「반복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제27권 3호(한국도덕교육학회, 2015), pp. 1-17.
- 임승택, 「긍정성 과잉의 문제와 중도(中道) - 초기불교에 근거한 이 시대의 중도 모색」, 『불교학연구』

- 51집(불교학연구회, 2017), pp. 39-244.
- 전재성 역주, 『쌍웃따니까야』 제1권(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9).
- 전재성 역주, 『율장대품-마하박가』(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2016).
- 제임스 레이첼스, 노혜련 김기덕 박소영, 『도덕철학의 기초』 (서울: 나눔의 집, 2006).
- El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Prentice-Hall, Pearson College Div, 1994).
- Noddings, N.,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02).
- Olendzki, A., *Unlimiting Mind*, (Wisdom Publications, 2010).
- Keown, D., *Buddhism & Bioethics* (London: Macmillan, 1995).
- 중앙일보 웹기사, 「학폭 학생 상담실 보재자 “감금”…서이초 비극 후에도 교사는 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830>(2024.05.08.)
- 한겨레 웹기사, 「카이스트, ‘AI·바이오 영재고’ 2027년 문 연다」<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5692.html>(2024.04.08.)
- 한겨레 웹기사,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은 ‘인성교육’ 강화 가장 원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0374.html>(2021.06.21.)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검색: 2024.09.16.)

---

**MEMO**

---

---

## MEMO

---